

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

월간 보고서

2019년 1월

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주요국 대응 현황 분석

< 목 차 >

1. 개요 및 배경
2. 주요 국가별/지역별 대응 동향
 - (1) 미국
 - (2) 유럽연합
 - (3) 영국
 - (4) 아일랜드
 - (5) 캐나다
 - (6) 인도
3. 페이스북 관련 기타 동향
4. 영향 및 시사점

1. 개요 및 배경

- ▶ 캠브리지 애널리티카(Cambridge Analytica)의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(Christopher Wylie)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분석 데이터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폭로(2018.3.17)¹한 후 세계 각국의 DPA와 의회 등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대응
 -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(Global Science Research, GSR)의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받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

1 <https://www.theguardian.com/news/2018/mar/17/cambridge-analytica-facebook-influence-us-election>

- 페이스북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한 당일 EU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영국 ICO 등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(2018.3.21)² 이를 기점으로 주요국들의 대응도 꾸준히 전개
 - 이에 따라, 본 원에서는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과 및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에 대해 검토한 데 이어, 이 보고서(2019년 1월)를 통해 그 이후 진행된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
- ※ 2018년 5월까지의 동향은 2018년 5월 2주차 및 5월 4주차 동향보고서 참조 요망

2. 주요 국가별/지역별 대응 동향

(1) 미국

- ▶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‘소비자 보호, 제품 안전, 보험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소위원회 (Subcommittee on Protection, Product Safety, Insurance, and Data Security)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페이스북의 파트너 업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협에 관한 증언을 청취 (’18.6.19)³
 - 미 FTC의 최고기술책임자를 역임한 애쉬칸 솔타니(Ashkan Soltani)와 퀴즈앱 개발자인 알렉산드르 코간(Aleksandr Kogan) 등이 증인으로 출석
 - 애쉬칸 솔타니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이용 관행이 2011년 연방 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⁴
 - 알렉산드르 코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당 퀴즈앱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며, 퀴즈앱을 통해 가져온 데이터보다는 페이스북의 기존 표적광고 시스템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목적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합했을 것이라고 주장⁵
 - 2018년 4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에 대해 진행되었던 심리에 이어, 이번 청문회 역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시사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이 특징⁶
- ▶ 미 연방수사국(FBI)과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페이스북의 협조 하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

2 <https://iapp.org/news/a/article-29-working-party-investigating-facebook-cambridgeanalytica/>

3 <https://www.c-span.org/video/?447132-1/senate-committee-examines-cambridge-analytica-partnership-facebook>

4 <https://www.courthousenews.com/cambridge-analytica-quiz-designer-apologizes-for-data-mining-role/>

5 <https://www.courthousenews.com/cambridge-analytica-quiz-designer-apologizes-for-data-mining-role/>

6 <https://www.c-span.org/video/?447132-1/senate-committee-examines-cambridge-analytica-partnership-facebook>

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7('18.7.2)

- 이 조사는 △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의 데이터 공유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△페이스북의 통지 및 고지 내용과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
- 특히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개발자로나 제3자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적절하게 경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
 - SEC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 이용에 대해 페이스북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
 - 이와 함께,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페이스북과 투자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 검토
- 한편, 페이스북은 앞서 2018년 3월 이미 연방거래위원회(FTC)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으며, 미국의 언론은 이번 조사에 SEC와 FBI, 미 법무부가 참여한 것으로 관측8

▶ 미 워싱턴 D.C.의 칼 라신(Karl Racine) 법무장관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, 워싱턴 D.C.의 소비자보호절차법 (Consumer Protection Procedures Act)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기소9 ('18.12.19)

- 라신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△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하고 △2년 동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△서드파티 앱의 정보이용 현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지적
- 워싱턴 D.C.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 의회와 웹 사용자들의 압박에 직면한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그 동안의 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

(2) 유럽연합

▶ 유럽의회는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CEO를 출석시켜 해당 사태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기록10 ('18.5.22)

- 저커버그 CEO는 지난 2년 동안 페이스북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

7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8-07-02/facebook-says-cooperating-with-sec-fbi-on-cambridge-analytica>

8 <https://www.apnews.com/f657cc2ead8b4fdd8afa26f5945c85a3>

9 <https://mashable.com/article/facebook-lawsuit-cambridge-analytica/>

10 <https://www.securityweek.com/im-sorry-facebook-boss-tells-european-lawmakers>

2019년 1월

KISA 한국인터넷진흥원

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

- 이와 함께 페이스북이 대규모 개인 데이터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겠다고 강조
 - 한편, 이 청문회는 유럽의회 시민자유와 정의 및 가정 문제위원회(Committee on Civil Liberties, Justice and Home Affairs, LIBE)를 통해 개최¹¹
 -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증언 내용이 온라인 중계되었으며, 유럽의회 안토니오 타자니(Antonio Tajani) 의장은 페이스북 사람들의 개인정보 가치를 존중하도록 촉구
- ▶ 이후 유럽의회는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2회에 걸친 추가 청문회를 개최 (18.6.25, '18.7.2)¹²
- 앞서 열렸던 첫 번째 청문회가 사건의 전말에 대한 파악을 위한 것이었던 반면 추가 청문회는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스캔들의 결과와 사태수습 및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
 -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의 스티븐 새터필드(Stephen Satterfield)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이사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EU 사용자의 데이터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공유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면책의 여지를 강조¹³
 - 이와 함께, 페이스북의 정책 솔루션 담당 부사장인 리처드 앨런(Richard Allan)은 퀴즈 앱 개발자인 알렉산드르 코간(Aleksandr Kogan) 박사와의 계약이 미국 정치 캠페인에서 사용할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한정되었다고 주장
 - 그러나 EU 소비자 그룹인 BEUC의 우르술라 파홀(Ursula Pahl) 부총장은 이러한 진술이 모순이라고 비난했으며,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당국 역시 입장을 번복하는 페이스북의 태도에 대해 경계

(3) 영국

- ▶ 영국 ICO는 정치 캠페인에서 데이터 분석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하며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¹⁴ ('18.7.10)
- ICO는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오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, 주요 정당, 데이터 분석 회사, 주요 소셜 미디어

11 <https://ico.org.uk/about-the-ico/news-and-events/news-and-blogs/2018/06/european-hearing-on-facebookcambridge-analytica/>

12 <http://www.europarl.europa.eu/news/cs/press-room/20180608IPR05415/facebook-cambridge-analytica-reps-continue-the-personal-data-breaches-probe>

13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8-06-25/facebook-says-eu-user-data-likely-untouched-in-privacy-scandal>

14 <https://ico.org.uk/about-the-ico/news-and-events/news-and-blogs/2018/07/findings-recommendations-and-actions-from-ico-investigation-into-data-analytics-in-political-campaigns/>

플랫폼을 조사 대상에 포함

- ICO의 조사에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으며, 다른 업체 등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
 -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 내용에는 1998년 데이터보호법(Data Protection Act 1998)에 대한 두 가지 위반 사항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최대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특징
 - 한편, ICO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에 러시아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,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속 위치를 숨길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¹⁵
- ▶ 영국 ICO는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스캔들에 대해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¹⁶ ('18.10.25)
- 이 금액은 1998년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해 ICO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지만,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발생한 시점이 EU GDPR 시행 이후였다면 벌금 금액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
 - ICO의 엘리자베스 던햄(Elizabeth Denham)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규모와 전문성에 비춰볼 때 이러한 데이터 유출 사실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더 나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
 - 또한 페이스북은 2015년 위반 사실이 발견된 후에도 데이터 보유자들이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ICO의 지적
- ▶ 영국 법원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계열사인 SCL 일렉션스(SCL Elections)에 대해 1만 9,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('19.1.9)¹⁷
- 이와 관련, 영국 ICO는 SCL 일렉션스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ICO의 통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
 - SCL 일렉션스에 대한 이번 벌금 부과 조치는 이미 폐업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처벌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
 - 한편, ICO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수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, 영국 의회도 이 사안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2017년 미 대선에

15 <https://www.theguardian.com/technology/2018/jul/18/facebook-data-gathered-by-cambridge-analytica-accessed-from-russia-says-mp-damian-collins>

16 <https://www.businessinsider.com.au/facebook-gets-top-fine-ico-cambridge-analytica-data-breach-2018-10>

17 [https://uk.anygator.com/article/cambridge-analytica-fined-\\$19-000-in-first-prosecution-on-data-disclosure_8902202](https://uk.anygator.com/article/cambridge-analytica-fined-$19-000-in-first-prosecution-on-data-disclosure_8902202)

2019년 1월

KISA 한국인터넷진흥원

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조사 중

(4) 아일랜드

- ▶ 아일랜드 DPC(Data Protection Commission)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¹⁸ ('18.10.3)
 - DPC는 이와 관련한 성명서에서, 페이스북이 "개인 데이터의 보안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 조치"를 취하는 등 EU GDPR에 따라 규제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
 - 페이스북은 미 국토안보부 및 입법부 의원들과 이번 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, 또 다른 의회 위원회와 회동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DPC는 2018년 9월 페이스북의 보안 침해 사고로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유럽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¹⁹ ('18.10.16)
 -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이 EU GDPR의 적용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번 사고의 영향을 받은 유럽 사용자의 수는 페이스북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전망

(5) 캐나다

- ▶ 캐나다 의회와 영국 의회 소속 의원들은 2018년 11월 27일 런던에서 열리는 공동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참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²⁰ ('18.10.31) 저커버그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²¹
 - 캐나다 정보접근, 프라이버시 및 윤리 상임위원회(Standing Committee on Access to Information, Privacy and Ethics)의 밥 짐머(Bob Zimmer) 위원장과 영국 의회의 디지털, 문화, 미디어 및 스포츠 선정 위원회(Digital, Culture, Media & Sport Select Committee) 소속 데이비드 다미엔 콜린스(David Damian Collins) 위원이 이를 주도
 - 저커버그 CEO는 이에 앞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음
 - 영국과 캐나다의 이번 공동 청문회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

18 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facebook-cyber-ireland/facebooks-lead-eu-regulator-opens-probe-into-data-breach-idUSKCN1MD2EC>19 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facebook-cyber-ireland/facebooks-lead-eu-regulator-opens-probe-into-data-breach-idUSKCN1MD2EC>20 <https://www.cnet.com/news/uk-and-canadian-politicians-push-for-mark-zuckerberg-privacy-hearing/>21 <https://www.myprincegeorgenow.com/88235/zimmer-gets-zilch-from-zuckerberg/>

"가짜 뉴스"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, 앞서 저커버그 CEO의 증언을 듣지 못했던 전 세계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 원할 경우 이번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저커버그 CEO의 증언은 불발

(6) 인도

- ▶ 인도 중앙수사국(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, CBI)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(Global Science Research)로부터 인도의 페이스북 이용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임을 확인²²
 -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는 학술 연구 목적을 가장한 앱을 통해 페이스북 상에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
 - 이번 조사는 데이터의 불법적인 수집 및 오남용 여부를 밝혀내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이며, 페이스북으로부터도 정보를 확보하고 페이스북 관계자들도 조사할 계획
 - 앞서 인도 정부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인도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

3. 페이스북 관련 기타 동향

- ▶ 페이스북이 애플과 아마존 등 적어도 60개의 기술 기업들과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맺고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와 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('18.6.4)²³
 - 페이스북과 이러한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에는 애플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블랙베리, 중국의 화웨이 등이 포함
 -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관계 현황 및 기타 개인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었으며 제3자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불허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²⁴
 - 페이스북이 이러한 협력 관계를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였으며,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업체들은 주소록이나 메시징 도구와 같은 페이스북 플랫폼의 기능을 휴대폰 및 기타 장치의 운영 체제에 더 잘 통합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

22 <https://techcircle.vccircle.com/2018/08/09/cbi-probes-cambridge-analytica-receiving-facebook-data-from-global-science/>

23 <https://www.euronews.com/2018/06/04/facebook-faces-more-scrutiny-over-data-sharing>

24 <https://www.nytimes.com/interactive/2018/06/03/technology/facebook-device-partners-users-friends-data.html>

2019년 1월

KISA 한국인터넷진흥원

- 특히 애플과 블랙베리 등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개인 API에도 액세스한 것으로 추정
 -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제품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인 이매 아치봉(Ime Archibong)은 해당 제조업체들의 단말기에서 손쉽게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
 - 그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유를 위한 API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, 사용자경험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파트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 없다고 주장
- ▶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, 페이스북은 또 다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림슨 헥사곤(Crimson Hexagon)에 대해 이용 정책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며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일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²⁵ ('18.7.21)
- 페이스북은 크림슨 헥사곤이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러시아 정부와 연관이 있는 조직들을 포함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거래해왔다고 인정
 - 페이스북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근거로 볼 때, 크림슨 헥사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확보한 정황은 없었다며, 이번 조사에 크림슨 헥사곤도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
 - 페이스북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, "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정보를 이용해 개발자들이 감시 도구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석 관련 앱을 일시 중지시켰다"고 설명
- ▶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의 여파로 앱을 통한 이용자 데이터 오용 문제에 민감해진 가운데, 의심스러운 앱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시행²⁶
- 페이스북에 의해 2018년 여름 금지된 myPersonality 앱은 2012년 이전에 활성화되어 약 400만 명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
 - 이 앱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로 인한 페이스북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 번째 앱으로 기록
 - 페이스북은 myPersonality 앱에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고지했지만 이 앱이 이용자의 친구 목록에 액세스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친구로

25 <https://www.theguardian.com/technology/2018/jul/20/facebook-crimson-hexagon-analytics-data-surveillance>

26 <https://viopro.com/facebook-bans-an-app-once-used-by-4m-people-suspends-200-more>

등록된 이용자들에게까지 고지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

- ▶ 캐나다 OPC(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)는 뉴질랜드 업체가 캐나다의 페이스북 이용자 수백만 명의 프로필을 재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²⁷ ('18.7.18)

- 조사 결과에 따르면, 프로파일 엔진(Profile Engine) 웹 사이트의 운영 업체인 프로파일 테크놀로지(Profile Technology)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검색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래 페이스북에 "공개"로 설정된 프로필 정보만 수집했으나 나중에는 자사의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재사용
-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프로파일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에서 4억 2,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,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일 뿐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
- 한편, O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프로파일 엔진 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발견한 사람으로부터 수십 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설명

- ▶ 이탈리아의 반독점 규제기관(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)이 페이스북(Facebook Inc.) 본사 및 유럽지역 법인인 페이스북 아일랜드(Facebook Ireland Limited)²⁸에 대해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1,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도 ('18.12.17)²⁹

- 이에 따르면, 페이스북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제3자와도 부당하게 정보를 공유
- 페이스북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"액티브 플랫폼 (active platform)"기능을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, 이 기능은 페이스북이 서비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의 없이 외부 웹 사이트와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
- 이와 관련,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, 2018년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활용과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더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

- ▶ 독일의 반독점 규제기관(Federal Cartel Office)은 페이스북이 제3자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

27 https://www.priv.gc.ca/en/opc-news/news-and-announcements/2018/an_180718/

28 페이스북의 자회사로서 유럽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음.

(참고: <https://www.bloomberg.com/research/stocks/private/snapshot.asp?privcapId=208395289>)

29 <https://www.ilsde24re.com/art/notizie/2018-12-07/antitrust-multa-10-milioni-facebook-uso-dati-utenti-fini-commerciali-132420.shtml?uid=AEL2IWG>

2019년 1월

KISA 한국인터넷진흥원

수집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³⁰

- 독일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이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온라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
- 규제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은 제3자 웹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"좋아요" 버튼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게 되며, 페이스북이 소유한 왓츠앱(WhatsApp)과 인스타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
- 독일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이미 페이스북과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, 이 같은 규제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경우 EU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
▶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EU GDPR의 적용 범위를 이를 유럽 이외의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확인³¹

- 개인정보보호 옹호 단체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GDPR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나, 페이스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권을 비롯해 GDPR에서 요구되는 여러 항목들이 이미 자사의 고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
- 페이스북의 이 같은 방침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도록 한 GDPR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입장을 반영
- 이는 아프리카, 아시아, 호주 및 라틴 아메리카의 페이스북 이용자 15억 명이 GDPR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보호받거나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³²

▶ 페이스북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이후 회사를 3개의 새로운 부문으로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³³ ('18.5.8)

- 개편된 조직은 △플랫폼 자체와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는 그룹 △가상현실, 인공지능, 블록체인과 같은 신흥 기술을 도입하는 그룹 △광고, 인력, 보안을 처리하는 그룹으로 구성
- 이번 사태의 여파로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인 알렉산더 스테이모스(Alexander Stamos)가 퇴사하는 등 인적쇄신이 이루어졌으나, 조직개편이 페이스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

30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business/facebooks-privacy-problems-get-real-in-germany/2019/01/14/76e9cfe-17fc-11e9-b8e6-567190c2fd08_story.html

31 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facebook-ceo-privacy-exclusive/exclusive-facebook-ceo-stops-short-of-extending-european-privacy-globally-idUSKCN1H42M1>

32 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facebook-privacy-eu-exclusive/exclusive-facebook-to-put-15-billion-users-out-of-reach-of-new-eu-privacy-law-idUSKBN1HQQ0P>

33 <https://www.nytimes.com/2018/05/08/technology/facebook-executives.html>

해결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

4. 영향 및 시사점

- ▶ 2019년 1월 현재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파악을 위한 집중적인 청문회 등은 소강상태이나, 각국 DPA와 사법 당국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됨
- ▶ 유럽연합은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,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권자 데이터를 오용하는 단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³⁴ ('18.9.19)
 - 이 제안은 정당과 재단을 대상으로 하며,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데이터 보호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연간 예산의 5%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
 -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정부들에게도 온라인 정치 광고를 엄격한 투명성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
 - 한편, EU 규제 당국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페이스북-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유권자 데이터 오용 사태로 수백만 명의 EU 시민들이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,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모색해온 상황
- ▶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들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합의³⁵ ('19.1.16)
 - 이에 따라, 유럽의 정당들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전망
 - 해당 규칙의 최종 문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가 필요하지만, 모든 유럽 EU 기구들이 이 규칙을 이미 승인한 상태
 - 한편, 유럽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페이스북/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의 교훈에 비춰볼 때 선거 캠페인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

34 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eu-dataprotection/eu-plans-fines-over-misuse-of-voter-data-to-sway-polls-idUSKCN1LS0DE>

35 <https://www.thebreakarea.com/275111/>



발행일 2019년 1월

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기획팀

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(301-2) Tel 1544-5118

- ▶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▶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,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